

# 전국 최우수 지하철에 ‘광주교통공사’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서비스·시책 평가 포상

여수, 30만미만 지자체 ‘최우수’…어르신 무료버스 호평

광주교통공사가 정부가 주관한 올해 전국 철도·도시철도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여수시는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대상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컨벤션에서 ‘2024년 대중교

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철도·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여객터미널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성, 서비스 품질,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와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교통공사와 여수시가 각각 부문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교통공사는 철도·도시철도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재난관리 대응 역량과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1위 달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린 점이 주목됐다.

여수시는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를 대

상으로 한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운전행동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KRC-AX 전략’ 본격화

AI 교육·데이터 개방·재난 대응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 전환 청사진인 ‘KRC-AX 전략’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 확보,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2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우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법 등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 기반 챗봇과 음성봇을 도입해 ‘24시간 고객 응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시계열성·신뢰성·변용성을 갖춘 ‘인공지능 전화 데이터’로 전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형 인공지능 혁신도 추진한다. ‘인공지능으로 그린 미래 농어촌 도시 공모전’ 등을 통해 혁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제안을 실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촌 인공지능 혁신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인공

지능 활용을 본격화한다.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장비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종합 분석해 홍수·기름 등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과학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한 과제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과제로 선정돼 현재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사이버 안전망도 강화한다. ‘AI 보안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위협을 자동 탐지·분석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AI 리스크 매트릭스’를 도입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설계·개발·운영 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농어촌 안전관리와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LH, 빛그린산단 산업용지 6필지 공급

자동차산업 등 내달 6일까지 분양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1단계(광주, 함평)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추첨경쟁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유치업종인 자동차 산업, 디지털정보산업, 광산업, 첨단부품소재 업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조성 중인 407만㎡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다.

광주·함평을 비롯한 나주 등 주요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공급되는 토지는 빛그린 1단계 구역의 유치업종별 각 2필지를 공급단가가 3.3㎡당 82만원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비롯한 다수 기업이 입주해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필지당 면적은 2400㎡~7600㎡, 공급 금액 5억9000만원~18억8000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로 계약체결일에 공급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입주 및 분양 절차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가 함께 진행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 관련 절차를 LH는 공급 및 분양계약 관련 절차를 각각 담당한다.

분양 및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LH 청약 플러스(<http://apply.lh.or.kr>)를 통해 내년 1월 6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13일까지 입주신청 및 심사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LH가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월 14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1월 2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와 입주 계약을, LH와 분양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면 된다.

기타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확인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062-360-3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주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합평사무소(070-8895-7935)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TP, ‘지역산업육성 성과공유의 날’ 개최

지역기업 22개사 참여

제품 전시·성공사례 소개

(제)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최근 광주TP 과학기술동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지역산업육성 성과공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광주TP와 지역기업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우수기업의 성공사례를 확산해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비롯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우수사례 발표,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22개사가 참여해 총 36개 제품을 전시했다. 참관객들은 전시 부스를 통해 광주 지역 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을 바탕으로 광주TP와 함께 추진해 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향후 지역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광주TP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의 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행사로,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광주TP는 지역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통해 지역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제)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주TP 과학기술동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지역산업육성 성과공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삼성전자 ‘2026 삼세페’…가전·모바일 혜택 확대

내년 1월 한 달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서 진행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티’(이하 2026 삼세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6회차를 맞은 행사는 가전·모바일·정보기술(IT)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삼성전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2026 삼세페에서는 ‘인공지능(AI) 구독클럽’의 인기와 1월에 몰리는 혼수·입주·이사 수요 트렌드에 맞춰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AI 폐기기’로 TV·냉장고·세

기, 식기세척기 등 총 17개 품목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정 수량 판매한다.

아울러 삼성스토어에서 ‘혼수클럽’과 ‘입주클럽’에 가입한 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별로 최대 80만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

혼수클럽 가입 고객이 5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등 9대 가전 무상 서비스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는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이사를 끝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멤버십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삼세페 사전 알림’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

탁건조기 등 대형 가전 구매 시 품목당 최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전국 최우수회 ‘영예’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전국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되며 조직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중앙회 제36차 정기총회에서 광주전남도회를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업무 역량, 회원 가입 실적, 회비 징수 성과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협연 대응과 회원사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침체된 건설 경기 속에서도 회원 결속과 협장 중심의 정책 건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2부 회의에서는 제14대 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선출도 함께 진행.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덕진종합건설(주) 김성은 대표가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울산·경남도회장이었던 김 대표는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숨은 일꾼상’ 시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직문화 변화와 혁신을 이끈 직원에게 ‘숨은 일꾼상’을 전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본사에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열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원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범위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지킨 현장 근무자, 극한 기쁨의 대안인 ‘지하수 댐’ 기술 연구로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진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끈 관리자 등이다. 공사는 수상자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시리즈’를 제작·공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광주연구원, 성과보고회 개최 부서별 업무계획·직원 포상 등

광주연구원은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연구사업과 행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5년 광주연구원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성과보고회에는 연구원 전 직원이 참석해 2025년 종합 성과를 보고하고,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또 우수연구원과 업무 성과자에 대한 포상과 정책 현장 탐방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재확인하고, 부서 간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26년 연구·업무계획 발표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통축 공연 관람과 5·18 기념공간 탐방 등 문화예술·지역사관련 프로그램을 병행해 직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확